202128159 김민좌 벙커 대비 1번



<https://nowformosa.blogspot.com/2021/04/blog-post_73.html>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4/14/2021 10:47:00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대표단이 대만에 14일 도착한 가운데 중국이 대만해협 인근에서 6일간 미사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4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 월 14 일 수요일 대만에서 파견 한 대표단이 타이완 해협 근처에서 6 일간의 미사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사국(海事局)은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대만해협 인근 광둥성 난펑열도(南澎列島)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난펑열도는 1952년 9~10월 중화민국과 중국 사이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이 승리했다.

이것이 공고된 시간은 14일 오전 8시경으로 미국 대표단이 대만에 도착하기 약 7시간 전이다.

중국의 실탄 훈련 첫날은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차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차관 등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접견 일과 일치한다.

방문단의 임무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한 대만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29/2021 09:03:00 오후

존 헤네시 닐랜드 주팔라우 미국 대사가 수랑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 대만 언론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래블 버블 홍보차 대만을 찾은 팔라우 대통령은 28일 대만에 도착해 자국의 미국 대사를 데릭고 왔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이는 1979년 대만과 미국의 외교관계가 단절된 이후 처음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이다.

대만에서는 43년 만에 이뤄진 미국 대사의 대만 방문을 두고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존 헤네시 닐랜드 주팔라우미국대사는 과거 대만 옹호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으며 팔라우가 대만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만을 인정했다.

또한 타이베이법(타이베이액트)을 지지했다. 대만내 학자들은 대만과 미국의 외교 관계가 한 발 더 진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수랑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은 도착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팔라우 미국대사가 방문단에 합류했다며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닐랜드 대사는 호주, 피지에 파견됐던 미국 고위급 외교관이다. 또한 미국 해병대 외교 고문을 역임했다. 2019년 그는 팔라우 대사로 임명됐다.

왕즈성(王智盛) 중화아시아태평양엘리트교류협회 비서장은 이번 미국 대사의 방문은 미국이 팔라우 대통령의 대만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미국이 대만이 남태평양 수교국과의 외교 관계 발전을 지지한다느 의미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만과 미국 관계가 퇴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이번 미국 대사 방문으로 인해 앞으로 대만과 미국 관계가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대만-미국이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만큼 3자 협력 체계를 통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미국 대사의 방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속내로도 풀이된다.

28일 미국과 인도는 중국을 겨냥해 이틀간 'PASSEX'라는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이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시작됐다. 인도와 중국은 지난해 접경지대인 라다크 지역에서 수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